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후 (3부) 2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4월 13일 (제737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왕의 사위된 고아

핀란드의 어느 왕에게 공주가 하나 있었다. 왕은 딸을 일찍 결혼시켜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전국에 사위감을 구한다는 방을 붙였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 왔고, 건강한 젊은이 20명이 딸 타기와 활쏘기인 첫 판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문, 왕은 직접 그들에게 명령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 오너라.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 참 난감한 문제였다. 나무가 아무리 길어도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없는 법. 그런데 20명 중에는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페로의 눈에 나무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맞아, 바로 나무 십자가야!” 100일 후 왕 앞에서 존 페로는 말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즉 수직적, 수평적 사랑을 뜻합니다.” 그 말에 왕은 무릎을 치며,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내 사위다.”라며 딸과 결혼을 시켰다. 그는 후에 핀란드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렇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 곧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을 이어준 연결다리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과 수난의 의미가 아니라 축복과 영광이요, 하나님의 큰 역사다.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엡2:16). 그래서 나는 고난주간을 ‘감사주간’이라 부르고, 애통하기보다 감사 찬송을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까! 목 매여 감사할 뿐이다. 그 주님을 위해 이 한 목숨 아깝지 않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라

이름날 같은 장소에서 목회자 및 실업인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다. 지난 1월 바르가스(Bar-gas) 집회를 주관했던 가르시아(Garcia) 주지사였다. 이번 집회에도 공평영접 및 경호, 숙식 등 모든 것을 제공해준 의리의 사나이다. 목사님은 세미나에 들어가 기 전, 가르시아 주지사에게 언론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21세기 가장 큰 힘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기자들의 평가 한마디는 매우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주지사가 이 나라 정치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언

는 것입니다. 죽은 왕이 무슨 소용이며 임기 끝난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권세만 하겠습니까?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자를 활용합니다. 내가 가르시아 주지사를 잡았더니 내가 이 나라에 오면 먹고, 마시고, 잡히고, 타는 것뿐 아니라 경호에서부터 집회에 소용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내 통역관 이 선교사는 나를 잡더니 남미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뿐 아니

“목사님의 목회 성공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루 평균 4시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집회를 앞두고는 하루 7, 8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신 것처럼, 나는 정직하고 깨끗한 자가 되려고,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세로 나를 다듬어왔습니다. 끝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 자신과 싸웠습니다.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교회의 어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해 왔



베네수엘라 과레나스 목회자 및 실업인 세미나 광경

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언론을 피하지 말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가르시아 주지사는 애국자요, 신뢰할만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의 나팔수가 되어 절로 홍보해줄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미나는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는 전도서 9장 4절 말씀을 포인트로 목사님은 영향력 있는 자를 잡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하셨다. “과거의 영광은 아무 소용없

다 내가 받는 영광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잡았기에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죽은 신을 믿고, 물렁이에 걸리고 빙니다. 죽은 신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여러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중 한 목회자가 목사님께 질문하였다.

“어머니 회갑잔치보다도 먼저 하나님 일을 위해 부흥회로 향했고, 내 자녀보다도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러 몸부림쳤습니다. 성도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고 목회해왔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려 애쓰며 기도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비결입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목사님의 절절한 목회철학이다. 항상 기도하고, 정직을 일삼으며,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곧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다음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세미나에 목사님을 찾아온 가르시아 주지사



루이스 목사(오른쪽)와 그레고리 목사 부부(왼쪽)



목사님의 강에 박수를 치며 호응하는 참석자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대하14~16)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는 위기가 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27).

이는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나 남편과 아내, 권력과 돈, 그 어떤 것도 신앙과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살다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교회나 회사나, 부모나 신앙이나, 돈이나 믿음이나 등등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지요. 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십니까?

“회사 다녀봐. 그게 내 맘대로 되나.”, “노모가 계셔서...”, “돈 벌어서 현금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이미 타협한 겁니다. “너도 그 상황이 돼봐라. 너도 어쩔 수 없이 나처럼 할 거다.”라는 말도 신앙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역사사지(易地思之)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아버지의 장례만 치르고 바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이 당연히 ‘Yes’ 하실 거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은 ‘No’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눅9:60)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타협할 수 있지만 신앙인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매정하신 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가족과 작업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자, 그것도 용납지 않으시고 “손에 쥘 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눅9:62)고 하셨습니다. 피도 눈물도, 인정조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신앙자세가 가히 어떠한가 하는 것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뼈를 깎아 아픔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미리 가르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창22:2). 어마어마한 위기가 온 겁니다. 아들을 살릴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브라함은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

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고 바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했고, 아들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는 칼로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

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창22:16-18). 사르밧에 사는



총회장 이초석 목사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동이 난 과부는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먹고 아들과 죽으려 했습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사르밧을 지나다 그 집에 유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먼저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위기였습니다. 배고파 눈이 뻤한 아들을 줄 것인가, 선지자를 줄 것인가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선지자에게 그 떡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왕상17:14).

입다도 하나님께 한 서원과 현실 앞에서 갈등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째로 드리겠노라’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서원에 응답하사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제일 먼저 받긴 자는 다름 아닌 그의 무남독녀였습니다. 입다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딸을 살릴 것인가. 그러나 그는 서원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아비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부친과는 다르게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우상을 제거하고 종래의 신상과 태양상을 제거하는 등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바로 그의 모친인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겁니다. 아사는 갈등했습니다. 어머니니까 눈감아 줄 것이냐, 아니면 신앙대로 할 것이냐. 그는 결

단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기로. 그

리고 그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비사 35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대하15:19). 그러던 그가 변했습니다. 슬슬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치세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베냐민에 침입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는 북쪽 길을 막기 위해 라마를 건축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메섹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바아사를 격퇴하였습니다. 이에 선지자 하나니는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대하16:9)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신앙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

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마5:29-30). 이성이나 돈, 권력과 가족이 신앙을 흔들면 그걸 잘라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핏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는 목회철학을 가진 제게 신

하나님 최우선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

앙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 30년 동안 숱한 갈등을 겪었지만, 언제나 저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부흥회와 어머니 회합이 겹쳤을 때도 한 가문의 장손이요 장남인 저는 부흥회로 달려갔고, 교단과의 갈등에서도 타협만 하면 조용히 마무리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힘든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제게 넘쳐났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갈1:10). 제게 배운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제사 문제로 얻어맞고, 욕먹고, 심지어 이혼을 당해도 꾀없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 가능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 글을 맺으려 합니다. 요셉은 일생을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예로 보디발의 아내 유족 앞에서도 여자를 취해 팔자를 바칠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기로였지만, 그는 단호히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창39:9).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유난을 떨어야 장학생이 되고,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은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도록 쏟아질 것입니다. 합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내성적인 사람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전 세계 50개국의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인의 경우 75% 이상이 외향적인 반면, 한국인은 70% 정도가 내향적이라고 한다. 즉 한국인 중 3분의 2 정도가 내성적이라는 것이다.

신기한 것은 75%가 외향적이라는 미국에서 영재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영재 그룹의 50%가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뛰어난 리더나 인물들 중에는 내향적인 인물이 더 많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들고 보니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는 수잔 케인은 TED 강연에서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하지만 정작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내성적인 성격을 하나의 장애물로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의 확장시절로 돌아가 본다. 나의 내성적 성향이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떠오른다. "하나님, 나의 우유부단함과 내성적인 것이 싫어요. 주님께 서 완전히 바꾸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었다. 그 이후 나의 삶은 월가다운 아니지만, 결단할 때는 누가 봐도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에게 성공 DNA가 훨씬 더 많다는 연구결과를 아는가! 그래

서 더 이상 내성적이어서 안 된다며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외향적인 성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 비하를 멈추게 된 것 또한 내성적인 사람이 좀 더 세심하고 잘 보살피는 성격으로 인해서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미완성 작품을 만들지 않으셨다. 각자의 개성을 더하여 각각의 완성작품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안다. 그 이전의 삶 속에서 나는 늘 하나님은 미완성 작품을 만드셨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향적인 성품은 완성된 작품이고, 나는 분명 불완전한 작품이라고 확신했다. '완성작품이었다면 그토록 육체에 고통을 당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했기에 더없이 주께 듣고 아이다운 미소를 보여주지 못하며 살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간의 생각의 결과가 자신을 고통에 처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성격이 외향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다' 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격을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펼치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탓하기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생각, 더 멋진 생각을 꿈꾸며 살겠노라고 다짐해 본다. 이제는 더 멋지고 행복해질 내 자신을 위해서...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멋진 성산, 장성 기도원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오케스트라 소리에
농부네 두터운 옷 벗어 던지듯
무거운 땅 두꺼비 벗어 던지며 밟고 밟는 새싹과
꽃 방귀 뀌며 피어나는 이름 모를 순백의 흰꽃, 노랑꽃, 분홍꽃, 청꽃...
미소 지으며 속삭이는 모습에
물보라 삼각편 꽃님 무슨 글 쓰려고 새벽부터 피시나이까.
산새소리, 물소리, 잎마짓 찾는 송아지소리, 개 짖고 닭 우는 소리에
만물이 멋지게 밝아오며 미소 짓는 모습은
어릴 때 찍사랑 그리운 님 미소 같으니 천국 따로 없다.
쓰시려고 일찍도 깨셨구려,
아-아- 예전에 미처 몰랐던 요요한 그 맛 금식기도, 달콤한 꿀단지 성경,
내 영혼 찬양하니 밤과 육체는 춤을 추누나.
금식의 다리는 잃었던 영적 첫사랑 옛 님 만나는 가요일 줄야 누가 알랴.
주님과 밤새워 사랑의 실래 줄며 속삭임
이리도 좋을 줄야 왜 예전에 몰랐을까!
그 누가 알랴, 이 요요한 사랑의 맛을...
깨달고 주님 팔매게 삼아 삼을 언으니
내 맘은 꽃동산 천국이라네.
어보게,
깊은 밤 만물락동 소리에
잠자던 농부 일어나 밭 갈고 논 갈아 씨 뿌림 보세나.
우리도 잠깨어 복음의 씨 뿌려
미잖아 웃고 춤추며 추수할 날 농부처럼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참 좋다'
서로 마주보며 박수 보낼 날 밀밭에.
어보게,
금식기도란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른 것을 알게 하는 비밀 통로며,
내 삶 속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성령 속 주님의 샘물로,
내 눈 밝게 하는,
영·혼·육 살리는 숨기운 명약 중에 영약이라네.
행복한 삶의 동산 장성기도원,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에 미처 몰랐네.
자네도 와서 해보게나,
구수한 옛 첫사랑 맛과 향기에 꼭 빠져 헤어날 수 없게
그리움 속에 자주 찾지 않을가 하네.
이제 남은여생 자주 찾아 즐기려네.
이 성산에서 나의 좋은 친구, 금식과 함께!

2014년 4월 9일 기도원에서 朋友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세요

어느 날, 무디 목사가 미국의 어느 중소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일행이 그곳에 도착한 다음날, 그들의 숙소에는 머리가사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전도대회 소식을 접한 기자들이 전날 무디 목사님께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사정상 그 인터뷰를 거절했던 기자들이 보복성 기사를 쓴 것입니다. 기사를 본 전도대회 스태프들과 목사님의 일행들은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런 대놓고 하는 명예 훼손이요, 인격 살인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는 7시간 그 기사를 읽고는 절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자들이 나를 잘 모르는군. 나는 이 기사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줬는걸?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Sign)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하자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를 만류했습니다(삼하6:9).

환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감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첩경이 아닐까요.

신학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신앙의 밸러스트

'밸러스트', 이는 "배에 실은 화물의 양이 적어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안전을 위해 배의 밑바닥에 중량물이나 자갈 따위를 싣는다"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배가 망망대해를 헤치고 목적지를 향해 반듯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때 불어 닥칠지 모르는 폭풍우를 버텨주고,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밸러스트'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구나... 그렇겠다!'라고 수긍하다 문득 손풍에 잘 항해하다가 방향을 잃거나 좌초된 영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자칫중 시험에서 떨어져 낙담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 같으며 울먹이던 자매, 어릴 적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자기 웃을 보고 너무 더럽다고 책망하셨던 것을 잊지 못하고 이후로 위기 때마다 또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묘하게 영적체제를 겪는 집사님, 그리고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카드빚을 내서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즐겨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지 못해 싫다는 이유로 홀연히 떠나가신 권사님, 하루 일과를 새벽기도부터

시작해 교회일이러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종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다가 자신이 지옥으로 갈 것만 같다고 방향을 시작했던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묻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균형을 잡아주는 밸러스트가 있듯이,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도 인생이라는 배에도 환난과 시험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밸러스트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침내 천국까지 도달해서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한 신앙의 밸러스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참을 기도하던 중 갑자기 내 머리 속을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단호한 외침 한마디는 "나 예수의 종, 사도 이초석은..."이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카리스마를 뽐내며 예배 서두에 깨내시는 이 단말마적인 외침이 (저에게는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신앙의 밸러스트와 무슨 상관인다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성령

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주님께 받은 사명이 사도임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너희 목사님처럼, 너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곧 거친 세상을 항해하는 동안 천국에 이르게 하는 밸러스트가 될 것이다."

저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영혼들... 그들의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말씀에 밝아진 눈, 그리고 교회를 향한 특성이 시험과 환란으로 부터 균형을 잡고 마침내 천국에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는 신앙의 밸러스트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되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신앙의 밸러스트는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의 멋진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비로소 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찾아 왔습니다. 나 예수의 종, 사도 이초석은... 나 예수의 종, 조장 누구누구는... 나 예수의 종, 교사 누구누구는... 나 예수의 종, 문지기 누구누구는...

하서연 전도사

::교단소식::

::생각해봅시다::

백범 김구 동상 앞에서!



D-43,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43일 앞둔 지난 4월 7일, 총회장 목사님 지시에 의해 이시대 목사님을 필두로 서울, 경기 일원의 교역자 및 장로, 뜻 있는 성도들이 다시 시청 앞 광장에 모였다. 이번으로 세 번째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다.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대성공을 위해서다. 모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청 앞 광장을 한 바퀴 돈 후에 남대문을 거쳐 남산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 동상 앞에 섰다. 남다른 감회가 밀려왔다. 시대를 넘고, 상황은 다르지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김

구 선생이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예루살렘 권속들이나 매일반이기 때문이다.

백범 동상 앞에 선 이시대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 성회의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금식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회를 위해 제단의 제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십니다. 우리도

이 마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성회를 위해 하루씩 금식해주시고요. 단언하건대 이 성회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성회에 사람들이 차고 넘침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문을 속히 여실 것이 분명합니다.

열방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사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요일(11일)부터 40일 작정기도에 들어갑시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기도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성회가 성공하고, 그 날 하늘 문이 열리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소리가 남산을 흔들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룩적인 일은 국가나 교계가 단체로 일어나야 좋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 교단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가장 믿는 자에게 맡긴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동참하자. 통일이 되는 날, 저 김일성 광장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을 함께 찬양하자. 그 날은 곧 온다.

신영서

jesus7857@gmail.net

Good News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도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예표와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짚어지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0여년이 지난 뒤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짚어지시고 흉악한 죄수들만이 매달리는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도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조롱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는 피가 흘러 내렸고, 군병들이 휘두른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등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허리에 창으로 찔려 온몸의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종교지도자들의 배척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 아니면 빌라도의 오판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당신의 계획표에 의해 실현된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7-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한지 사흘 만에 사망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딤후 2:5).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Edu Section::

무능한 아버지

오래 전, 여러 후배들과 가족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다. 식사를 하던 중, 한 후배의 아들 녀석이 대뜸 "우리 아버지가 무능해서 군대를 가야한다."고 툭툭거린다.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군 입대와 아버지의 무능함이 무슨 상관인지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걸작이다. 자기 친구는 아버지가 잘 나가고 능력 있는 분이라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은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과 초등학교 5학년인 그 친구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군 면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다.

그 때,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스러운 사실이 두어 가지 있었다. 세상물정 모를 것 같은 초등학생들도 군 입대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군 복무의 사망감이나 목격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무능함을

탓하기만 하는 아이의 태도에 당황스러웠다. 그 일 이후, 몇몇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청소년들 대다수가 군대를 가야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인즉,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반세기가 넘는 시절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른들이 그렇진대, 어린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분단을 실감할 수나 있을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황금 같은 청년 시절을 군에서 보내야만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반세기가 넘는 동안 우리 모두는 불감증에 걸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긴박한 시국을 살면서도 '5월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회'의 소식과 그 중요성에 둔감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통일에 무심하게 살아왔다. 그러다 문득 우리의 자녀들이 끔찍한 전쟁의 희생양이 두 번 다시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의 당면한 현실을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통일이며, 그것도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녀들의 부모로써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침이면 조용히 기도실에 앉아서 주님께 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 5월에 있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오자유

oh.free@hanmail.net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할 일이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지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작가 미상의 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합니까?
하나님은 3등,
아니 그보다 못한 것은 아닌지
고난주일에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